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1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p123(2026.05.01.)	농업디지털센터	친환경
○	마늘·양파 시세 전망 엇갈려-7면(2026.05.08.)	-	농민신문
○	제주농업기술원, 차나무 수요 맞춤형 우수 품종 삼수 분양-9면(2026.05.11.)	농산물원종장	한국영농신문
○	도농기원·한국정보화농업인제주도연합회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12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제주농업기술센터 노지감귤 재배기술교육 -12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초여름 더위 식힌다...최대 40mm 비바람 예고-4면	-	제민일보
○	한농연 제주연합회, 위성곤 후보와 후계농 육성 지원 협약-2면	-	삼다일보
○	제주 농림어업 입지계수 전국 최고-5면	-	삼다일보
○	“마늘·양파 수확 지원 명 받았습니다” -4면	-	한라일보
○	제주한라대 외국인 유학생 일손돕기 ‘일석다조’ -9면	-	제주매일
○	농지 10만 필지 전수조사 돌입 “경자유전 확립” -15면	-	제주매일

(친환경: 2026년 5월 1일)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p123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예측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월동채소의 수급 불안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이달까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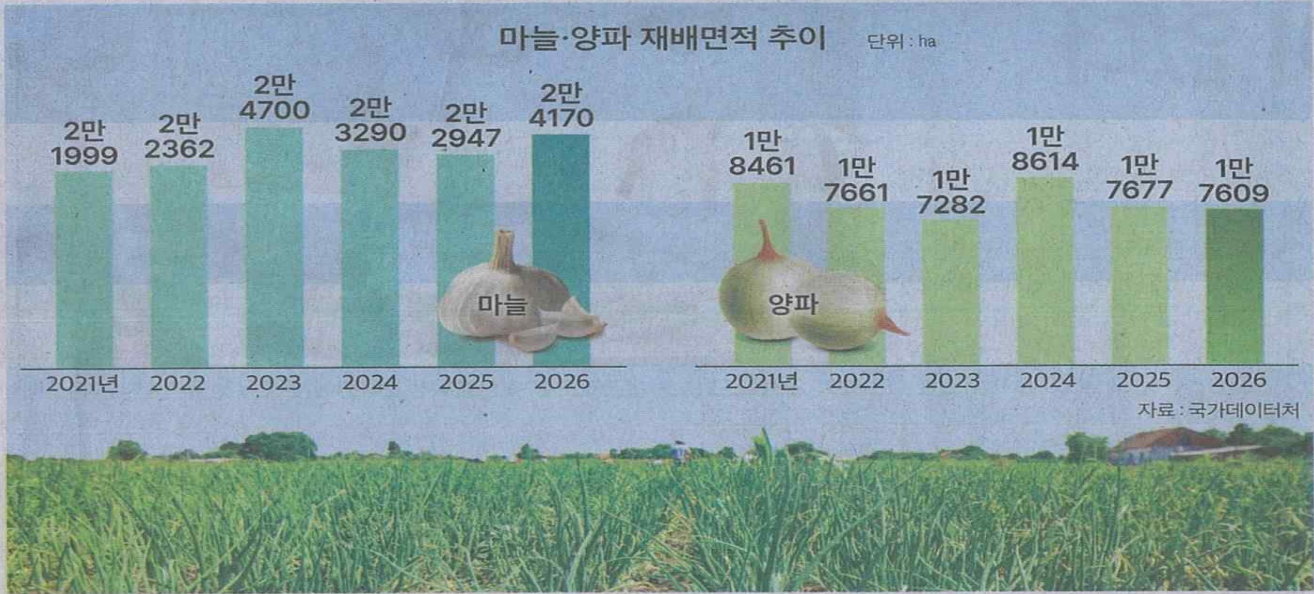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농산물 수급조절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농가의 재배 계획과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도내 파종 가능 물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미리추산 할 수 있다. 종자 수요량은 농가 재배로 이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의 지표로,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종자신청량은 실 재배면적을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선행 지표로 활용되며, 생산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민신문: 2026년 5월 8일)

○ 마늘·양파 시세 전망 엇갈려-7면



마늘·양파 시세 전망 엇갈려

최근 마늘·양파 시세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해산 재배면적과 생육상태도 희비가 교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늘, 재배면적 5.3% ↑ ... 제주산 5월15일 전후 수확 돌입 전망=국가데이터처가 4월29일 내놓은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마늘, 양파'를 보면 202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만 4170ha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견줘 5.3% 증가했다.

마늘 재배면적은 2023년 2만4700ha 이후 2024년 2만3290ha, 2025년 2만2947ha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마늘 가격 상승으로 올해엔 1223ha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aI(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4월 대서중 간마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kg 상품 기준 8030원으로 평년 5월 평균(7624원)보다 5.3% 높다.

수확이 이달 중순으로 가장 빠른 5.8. 제주지역에선 4월 기상 악화로 작황부진 우려가 나왔다. 송영석 서귀

마늘 재배면적 작년보다 5.3% ↑ 제주, 기상 악화 작황부진 우려 양파 재배 줄어도 시세 약세권 6월초 이전 수급안정 대책 필요

포 대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소장은 "3월말까지만 해도 작황이 양호했는데, 4월 강우량이 많아 무름병이 발생했다"면서 "밤 기온도 20℃가량 유지돼야 하지만 5월 초임에도 14~15℃로 낮아 구 비대가 원활하지 않다"고 전했다.

제주지역 농협의 지난해 마늘 수매 단가는 1kg 상품 기준 4300원이었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확작업은 15일께, 산지농협별 수매는 5월말께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지역농협별 수매단가는 이달 20일 이후 확정될 전망"이라고 했다.

◆양파, 재배면적 0.4% ↓ ... "6월초 이전 추가 수급책 내놔야"=2026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1만7609ha로 전년(1만7677ha) 대비 0.4% 줄었다.

양파는 2021년부터 1만7000~1만8000ha선에서 등락을 반복 중인데 2024년(1만8614ha) 이후 2년째 내리막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양파 재배면적은 최근 5년 내 2023년(1만7282ha) 이후 가장 적다.

양파는 두달 넘게 바닥권을 형성 중인 시세 회복 여부가 관심사다. 양파 도매가격은 6일 서울 가락시장 경락값 기준 1kg(상품)당 484원이다. 지난해 5월 평균(813원)보다 40.5%, 평년 5월(854원)과 비교해 43.3% 낮다.

산지에선 올해산 작황 호조를 예상했다. 양파 주산지 관계자 A씨는 "정부가 4월 중순에 이어 4월말 출하 정지 면적 확대, 5월 중생종 출하지연 등을 골자로 하는 양파 수급대책을 내놨음에도 가격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서 "이대로라면 6~7월 출하될 중만생종까지 약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산지농협이 중만생종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6월초 이전엔 양파 수급책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효상·심재용 기자

(한국영농신문: 2026년 5월 11일)

○ 제주농업기술원, 차나무 수요 맞춤형 우수 품종 삼수 분양-9면

제주농업기술원, 차나무 수요 맞춤형 우수 품종 삼수 분양

10개 품종 대상 15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제주도내 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루녹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나무 삼수'를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농가가 삼수를 활용해 자가 증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품종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일괄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단계에서 농가별 재배 목적과 활용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삼수 분양은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희망 물량·재배 목적·활용 계획 등을 함께

접수받는다. 신청량이 공급 가능 물량을 초과할 경우 재배 상황과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농산물원종장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분양 대상은 제주도내 차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법인)이며, 기존 재배 농가의 면적 확대를 1순위로 한다. 감귤원 폐원 또는 월동채소에서 차나무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는 다음 순위이며, 신규 재배 또는 보식 목적은 후순위로 선정된다.

공급 품종은 10품종으로, 농가(법인)별 최대 2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품종과 관계없이 1kg 당 3,000원이다.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가·법인별 최종 공급 물량은 6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삼수는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받은 삼수는 잎과 눈 1~2개 기준으로 조제하고, 삼목상을 활용해 발근시킨 후 이식해야 한다.

농산물원종장은 분양한 삼수의 성공적인 활착을 위해 삼목 제조·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원 김지원 농촌지도사는 “농가별 재배 목적에 맞는 삼수 공급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 11.
한국영농신문 9
제주농업기술원 기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19일)

○ 道농기원·한국정보화농업인제주도연합회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12면

道農기원·한국정보화농업인제주도연합회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과 (사)한국정보화농업인제주도연합회(회장 이애순)는 지난 9일 미래농업육성관에서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회 수상 영예는 부문별로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최우수 최은진씨(서귀포시)·우수 고택균씨(제주시) ▲라이브커머스 최우수 김향수씨(서귀포시) ▲스마트콘텐츠 최우수 양정주씨(서귀포시)·우수 고정아씨(제주시)에게

5. 19. 삼다일보 12

(삼다일보: 2026년 5월 19일)

○ 제주농업기술센터 노지감귤 재배기술교육-12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노지감귤 재배기술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지난 13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감귤 재배 농업인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감귤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농작업 안전교육과 함께 5~6월 노지감귤 재배 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5. 19. 삼다일보 12

(제주매일: 2026년 5월 19일)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6-18호(2026. 5. 15.)

농업현장 중심 실용·혁신 농업기술 개발·보급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노지감귤

- 여름비료 시용: 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 병해충 방제: 꽃 70% 정도 낙화 시 잿빛곰팡이병 적용 약제 살포

□ 만감류

- 온도관리: 낮 최고 온도 28℃ 이하 유지
- 물관리: (종화기~1차 생리낙과) 5~7일 간격 20톤/10a 관수
- 병해충 방제: 총채벌레·진딧물 등 예찰 후 조기 방제, 종화기 잿빛곰팡이병 적용약제 1~2회 살포하며 시설 내 환기 철저

□ 마늘

- 수확: 잎이 50~75%정도 말랐을 때 뽑아 3일 이상 말린 후 줄기절단
- 주아용은 구마늘보다 3~5일 늦게 수확, 주아가 달린 채 말린 후 줄기절단 및 주아 채취
- 종구저장: 바람이 잘 통하며 습하지 않고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저장

□ 초당옥수수

- 물관리: 이삭수염 출현 후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관리 철저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루 살포

□ 맥류

- 병해충 방제: 출수~개화기에 붉은곰팡이병 적용 약제 3회 이내 살포

<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 표준시비: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1)

5. 19.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5월 19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노지감귤

△여름비료 시용=5월 하순~6월 상순, 1년동안 주는 양의 질소 20%, 칼리 40%

△병해충 방제=꽃 70% 정도 낙화 시 잿빛곰팡이병 적용약제 살포

▲만감류

△온도 관리=낮 최고 온도 28도 이하 유지

△물 관리=(종화기~1차 생리낙과) 5~7일 간격 20t/10a 관수

△병해충 방제=총채벌레·진딧물 등 예찰 후 조기 방제, 종화기 잿빛곰팡이병 적용약제 1~2회 살포하며 시설 내 환기 철저

▲마늘

△수확=잎이 50~75%정도 말랐을 때 뽑아 3일 이상 말린 후 줄기절단-

주아용은 구마늘보다 3~5일 늦게 수확, 주아가 달린 채 말린 후 줄기절단 및 주아 채취

△종구 저장=바람이 잘 통하며 습하지 않고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저장

▲초당옥수수

△물 관리=이삭수염 출현 후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관리 철저

△병해충 관리=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루 살포

▲맥류

△병해충 방제=출수~개화기에 붉은곰팡이병 적용약제 3회 이내 살포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표준시비=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에 필요한 만큼 만비료를 사용하는 것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시비처방서 발급 방법 5. 19.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5월 19일)

○ 초여름 더위 식힌다...최대 40mm 비바람 예고-4면

초여름 더위 식힌다...최대 40mm 비바람 예고

질은 안개도 동반돼 주의 요구

제주에 초여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0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모레(21일)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10~40mm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은 24~25도로 평년(5.19. 낮 최고 21~23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차도 10도 안팎으로 크

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일은 흐린 날씨와 비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22~23도로 다소 내려가겠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전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지는 20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해상 상황도 좋지 않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과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 가능성도 있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저기압과 기압골 위치에 따라 강수 시점과 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관 기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19일)

○ 한농연 제주연합회, 위성곤 후보와 후계농 육성 지원 협약-2면

한농연 제주연합회, 위성곤 후보와 후계농 육성 지원 협약

(새)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회장 문병철)는 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농업을 위한 정예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철 한농연 제주도 연합회장 및 임원진, 위성곤 후보 및 선거

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농업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현재의 제주농업을 이어받아 발전 시켜 나가야 함에 공감하며, 정부에서 선정한 정예농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해 마련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삼다일보: 2026년 5월 19일)

○ 제주 농림어업 입지계수 전국 최고-5면

제주 농림어업 입지계수 전국 최고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발표

제주 농림어업 입지계수 6.99 가장 높아

총공급 대비 지역내 생산비중 65.3%

총사용 대비 지역내 사용비중 71.5%

제주지역 농림어업 입지계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농림어업 입지계수는 6.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입지계수'는 지역 내 특정산업이 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특화돼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해당 지역에 더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광업은 강원(16.55), 공공행정은 세종(5.82), 석유·화학제조업은 울산(4.23)에서 특화산업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공급 대비 지역내 생산 비중은 서울(68.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65.3%)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급 대비 수입 비중은 제주가 6.4%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2023년 총사용 대비 지역내 사용 비중도 제주(71.5%)가 강원(7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지역 내 공급과 생산 비중 모두 높은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지역 경제가 외부 수요와 외부

공급에 얼마나 개방적인지 보여주는 지표인 '외부경제 개방도'는 제주가 1.76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였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산출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71.7%로 가장 높았다. 제주지역 서비스업 비중은 서울(87.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제주지역 농림어업 비중(9.1%)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제주의 총공급은 72조9000억원으로 전국의 0.8%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역소득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경제구조를 분석하고자 '지역공급사용표'를 작성했으며, 올해 이를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19일)

○ “마늘·양파 수확 지원 명 받았습시다” -4면



18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의 마늘밭에서 해병대 제9여단 장병들이 마늘 수확을 지원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마늘·양파 수확 지원 명 받았습시다”

해병대 9여단, 내달 12일까지 일손 부족 농촌 돕기

해병대 9여단이 수확철을 맞은 제주 농민들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18일 해병대 9여단은 최근 마늘, 양파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5.19.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라일보 4내 150여 농가에 20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 대민 지원은 대정, 안덕, 고산, 한경, 한림, 하귀, 조천, 함덕, 김녕 등 도내 9개 지역의 농가에서 진행된다. 하루 평균 120여 명의 장병들이 마늘·양파 농가들을 찾아 수확을 도울 예정이다.

9여단 관계자는 “이번 대민지원 은 제주지역 농촌 인구 고령화와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따라 일손을 보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도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제주도민의 군대’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한편 제9여단은 2015년 12월 1일 창설한 이후 매년 마늘, 양파, 감귤 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19일)

○ 제주한라대 외국인 유학생 일손돕기 ‘일석다조’ -9면

제주한라대 외국인 유학생 일손돕기 ‘일석다조’

15일 대정읍 농가서 자원봉사 활동 첫 개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취지 살리기에 ‘고심’

제주한라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주도내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에 나섰다. 제주 지역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동시에 한국과의 거리감 좁히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엔커) 사업단 ‘STUDY JEJU’ 해외인재 유치양성 본부(본부장 신의경)는 지난 15일 금요일 서귀포시 대정읍 우계육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이는 엔커사업단과 농협중앙회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간 거버넌스 협약 이후 처음이다. 엔커사업단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마련했다.

이날 봉사활동 참가자는 네팔 출신 호 텔경영학과 바트 디라즈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과 버디 학생 등 총 30명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일손돕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엔커사업단은 이번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주 도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통합의 의미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제주 지역 정주를 위한 비자 전환 과정에서도 가점 요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동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제주한라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엔커) 사업단 ‘STUDY JEJU’ 해외인재 유치양성 본부가 지난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우계육 농가에서 진행한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은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활동 참가 유학생들은 이른바 ‘제주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를 찾았다. 지역의 관광산업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가 목적이다. 유학비자(D-2)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

하고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확대한 맞춤형 이민 정책이다.

신의경 본부장은 “현재는 미얀마와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문호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19일)

○ 농지 10만 필지 전수조사 돌입 “경자유전 확립” -15면

농지 10만 필지 전수조사 돌입 “경자유전 확립”

제주시 기본조사와 현장 심층조사 병행 추진
불법 전용과 휴경 등 적발되면 행정조치 단행

제주시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18일부터 농지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에 따른 농지가격 왜곡과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로 제주시 전체 10만 6천여필(15ha) 규모다. 이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의 약 51% 수준

이다. 조사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읍·면·동이 협업하는 전담 조직이 꾸려진다. 전담 조직은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을 총괄로 하는 전담팀과 읍·면·동 조사반을 구성해 총 27개 팀·반, 82명 규모로 운영된다.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동에서 30명 내외의 보조 인력도 별도로 채용한다.

제주시는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총 5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억8687만원, 도비는 1억9409만원이다. 이 예산은 조사 인력 채용과 장비 임차 등에 쓰인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는 기본조사에선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분석·선별한다.

심층조사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와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자경의 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사항이 확

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농과 실경작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농지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기 기자

5.19
제주매일 15